

보도시점 2025. 3. 7.(금) 14:00 배포 2025. 3. 7.(금) 13:00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의제 및 작업계획 확정

- APEC 2025 재무트랙 첫 번째 회의인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개최 -
- 지속가능 성장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혁신·금융·재정 역량 강화 등 의제 논의 -
- APEC 회원들의 경제·금융 협력을 위한 새로운 성과로드맵 수립 추진 -

기획재정부는 3.5(수) ~ 7(금)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이하 APEC)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APEC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 Meetin)」를 개최하였다. 올해 한국이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으로서 개최하는 첫 번째 회의로, '25년 APEC 회원들의 경제·금융협력을 위해 논의할 의제와 작업 계획을 확정하는 회의이다. 김범석 1차관이 개회사를 발표하였으며,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과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함께 회의를 주재하였다.

### < APEC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FCBDM) 개요 >

- ▶ 일시/장소 : '25.3.5.(수) ~ 3.7.(금) /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 ▶ 참석자 : 21개 회원(한국 포함) 재무부 및 중앙은행, 국제기구, 국내외 연구기관 등
- ▶ 목적 : '25년 APEC 재무장관회의 의제 및 작업계획 확정 등
- ▶ 구성 : (3.5, 워크숍) ①은행시스템의 디지털화와 혁신  
②안전하고 포용적인 금융을 위한 새로운 데이터 생태계  
(3.6~7, 본회의) ①의제 및 작업계획 ②세계 및 역내경제 전망 ③혁신  
④디지털 금융 ⑤재정정책 ⑥새로운 로드맵 등

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전세계적 대전환기를 맞아 APEC 회원들이 역내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동 번영을 이룰 해법을 함께 모색해보자고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❶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혁신 촉진, ❷금융시장의 혁신과 안정간 균형 도모, ❸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제고 등

혁신·금융·재정 3대 역량을 확충해야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5년간 APEC 회원들이 협력할 과제를 담은 새로운 성과 로드맵 수립을 제안하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였다.

최 국제경제관리관은 권 부총재보와 함께 본회의를 주재하였다. 국제통화 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APEC 정책지원부서(PSU)에서 세계 및 역내 경제 동향과 전망, 리스크 요인에 대해 발표하며 경제 여건을 점검하였고, 혁신·금융·재정 3대 역량 관련 진행된 세션에서는 APEC 회원들과 세계 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에서 선도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 대표단은 본회의에서 '25년 재무장관회의 의제 및 작업계획과 새로운 재무장관회의 성과 로드맵 수립계획을 소개하였다. '15년 세부(Cebu) 액션 플랜\*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성과로드맵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❶혁신을 통한 성장, ❷회복탄력적이며 혁신적인 금융, ❸지속가능하며 효율적인 재정 정책, ❹포용적인 미래선도형 경제 등 총 4가지 축을 제시하였다. APEC의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특성을 강조하며 회원들이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주도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회원들은 새로운 로드맵 수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 '15년 필리핀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포용적 경제건설을 목표로 APEC 차원의 협력 로드맵으로 수립되었으며 '25년 종료

한편, 본회의에 앞서 3.5(수) 디지털 금융 워크숍을 개최하여, 은행시스템의 디지털화와 혁신 방안, 안전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금융을 위한 데이터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은행 유상대 부총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은행, 국제결제은행(BIS), 아시아개발은행(ADB), 일본 재무부, 한국신용정보원 등에서 15명의 주요 연사가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유 부총재는 개회사에서 디지털 혁신 및 인공지능(AI) 발전으로 금융시스템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불안, 사이버 보안 리스크 등 디지털 혁신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전체 편익은 증대될 수 있도록 중앙은행, 금융당국, 국제기구 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회의를 시작으로 5.7(수)~9(금) 제주에서 고위 재무관리회의가, 10.19(일)~23(목) 인천에서 재무장관회의 및 구조개혁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확정된 의제 및 작업계획을 토대로 10월 장관회의에서 회원들의 경제·금융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의장국으로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                                       |                             |                                  |
|----------|---------------------------------------|-----------------------------|----------------------------------|
| 담당<br>부서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br>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 추진단  | 책임자                         | 팀 장 박해정 (044-287-2621)           |
|          |                                       | 담당자                         | 사무관 정소영 (syjeong0214@korea.kr)   |
|          |                                       |                             | 차 장 최종필 (edmund01625@korea.kr)   |
|          |                                       |                             | 차 장 김도윤 (doyoon23@korea.kr)      |
|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br>다자경제협력팀                | 책임자                         | 팀 장 류소윤 (044-215-7710)           |
|          |                                       | 담당자                         | 사무관 남궁향 (hyangchos@korea.kr)     |
|          |                                       |                             | 주무관 백지연 (delay100@korea.kr)      |
|          |                                       |                             | 차 장 이형선 (hs.lee@koreaexim.go.kr) |
|          | 외교부 APEC 정상회의준비기획단<br>협력사업부 재무장관회의준비팀 | 책임자                         | 팀 장 구교은 (044-287-2611)           |
|          |                                       | 담당자                         | 사무관 김소연 (yeoni2266@korea.kr)     |
|          |                                       |                             | 사무관 변유호 (yooho9078@korea.kr)     |
|          | 한국은행 국제협력국<br>국제기구팀                   | 책임자                         | 팀 장 김동휘 (02-759-4253)            |
| 담당자      |                                       | 차 장 김진희 (jinhee@bok.or.kr)  |                                  |
|          |                                       | 조사역 조재범 (jbcho97@bok.or.kr) |                                  |

## 1 인사 말씀

APEC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범석입니다.

오늘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회의”에 참석해주신  
각 회원 재무부 및 중앙은행 대표단과  
국제기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회의 준비에 도움주신 APEC 사무국 여러분 등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APEC 정상회의를 ‘05년 이후 20년만에 수임하고,  
재무트랙 관련 첫 번째 회의를  
정상회의가 열릴 경주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편, 복잡한 대외 환경 속 우리 APEC의 역할을 고민하고  
세계와 역내 경제 회복에 기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는 금년 한 해동안 APEC 재무트랙에서  
논의할 의제와 작업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틀동안 회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교하게 다듬으려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건설적 제안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지금 글로벌 대전환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이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과 복지시스템을 재편하며,  
자연재해 증가는 산업전략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통상정책이 빠르게 조정되고,  
글로벌 공급망 역시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거대한 변화는 상호 복합적으로 얽혀있으며,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의 성장잠재력 둔화와  
금융시장 불안까지 맞물리며,  
정부와 중앙은행이 직면한 현실은 점차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 성장모델과 정책 수단만으로는  
오늘날의 다층적인 도전에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 APEC이 세계 최대의 경제협력체로서  
이번 APEC 2025 재무트랙을 통해  
이러한 위험과 도전요인을 극복하고,  
역내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공유하여,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을 함께 찾기를 기대합니다.

회원 여러분,

오늘 저는

역내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공동 번영을 위한 핵심 과제로

①혁신 · ②금융 · ③재정의 세 가지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혁신 역량입니다.

슈퍼컴퓨터가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강조한 지

8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혁신의 구체적 내용은 시대에 따라 바뀌지만,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혁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생산성이 하락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투자유인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노동, 자본 등 기존 생산요소만으로

현재의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둔화된 잠재성장을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수입니다.

이번 APEC 재무트랙에서

혁신의 “방향”을 고민하고, 혁신을 “창출”, “확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산업의 디지털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25년 다보스 포럼에서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디지털 경제”가 강조된 것은 큰 시사점을 줍니다.

기존 산업에 AI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 혁신에 성공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해 회원간 협력할 분야를 발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금융 역량입니다.

금융 혁신의 영향은 금융 산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과거 신용카드가 등장하며 소비 경제가 확대되었고,  
벤처캐피탈이 IT 산업을 성장시켰듯,  
핀테크,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금융(Digital Finance)은  
금융과 실물경제의 경계를 허물며  
전반적인 산업 성장과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AI 등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금융의 파급력이 더욱 확대되며,  
우리 APEC도 지난 태국('22), 미국('23), 페루('24)에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중요한 의제로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빠른 성장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지만,  
동시에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도 내포합니다.

디지털 뱅크런, AI를 활용한 금융사기·범죄 등  
과거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위협요인이 등장하였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사태 등을 겪으며,  
디지털 시대의 금융위기는 속도·규모·범위가  
과거와 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속도뿐만 아니라 방향과 안정성도 중요합니다.

혁신과 안정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회복 탄력적“인  
금융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재정 역량입니다.

현재 우리는 한정된 자원 속 더 많은 것을 해결해야 하는  
재정 압박(Fiscal Squeeze)의 시대에 처해있습니다.

IMF에 따르면, 팬데믹과 인플레이션 대응 등을 위해  
많은 재정이 투입된 결과,  
‘24년 세계 공공부채(Public Debt)는 100조달러를 돌파하고, ‘29  
년에는 GDP 대비 공공부채비율이 10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기후대응 등으로 재정 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불요불급한 수요는 구조조정하고,  
민관 협력(PPP) 등을 통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혁신, 생산성 촉진, 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재정소요를 점검하여 향후 재정운용 기준도 정립해야 합니다.

이번 재무트랙은  
최근 위기 극복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사례 연구를 공유하고,  
재정준칙, 지출구조조정 등 핵심요소를 논의할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필리핀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발표되었던,  
세부(Cebu) 액션플랜은 포용적 경제건설을 목표로 수립되어  
지난 10년간 APEC 회원의 금융·재정분야 협력 강화와  
역내 경제회복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세부 액션플랜이 종료되는 금년  
새로운 APEC 성과로드맵 마련이 필요합니다.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서 강조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급변한 글로벌 경제·금융환경을 고려하고,  
지난 세부 액션플랜에 대한 평가와 회원국 의견 등을 반영하여,  
“혁신“, “금융“, “재정“, “포용“ 4가지 틀하에  
향후 5년간 회원들이 중점적으로 협력·이행할 과제들을 모아  
새로운 로드맵을 수립하여 합니다.

새로운 로드맵은 APEC 회원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APEC은 비구속적이고 자발적인 것이 특징이며 장점입니다.  
자유롭고 자율적인 협력을 통해  
참신한 해결책 도출과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현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우리 역내경제의 나침반이 될  
이상적인 로드맵이 수립되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APEC 회원 여러분,

APEC 2025 재무트랙은 금일 경주 회의를 시작으로,  
5월 제주 재무고위관리회의,  
10월 인천 재무장관회의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재무장관회의에서 도출될 의미있는 결과들이  
다시 이 곳 경주 정상회의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이 간직된 경주에서 한국의 과거를,  
아름다운 자연과 현대적 감성이 어우러진 제주에서  
한국의 현재를,  
국제 교류와 미래 발전의 중심지인 인천에서  
한국의 미래를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APEC 2025 재무장관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의미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장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포용적 발전을 위한  
공동의 해법을 찾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